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10:00 ~ 12:00]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 작성 시 필기구는 흑색 펜, 샤프 또는 연필을 사용할 것. (청색, 적색 펜 등 사용 불가)  
다만,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것.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불일치 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 수정은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여야 함.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제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 제 시 문 □

[가]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자신의 행운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 천부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거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이득을 볼 수 없으며 불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과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우월한 천부적 자질과 조건을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무시하거나 없애야 할 이유는 아니다. 그 대신 사회의 기본 구조는 이러한 우연성이 사회에서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와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은 부정의(不正義)한 것이며 이러한 부정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위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반대할 수 있다. 때때로 이러한 반대는 부정의를 목인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 자체는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정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귀족 사회나 계급 사회가 부정의한 이유는 그러한 사회가 이러한 우연성을 근거로 해서 일부 계층의 특권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우연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우연성에 자신을 내맡길 필요는 없다. 사회 체제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변적인 질서가 아니며 인간 행위의 한 양식이다. 공정성에 기반을 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해야 한다.

더 큰 천부적 재능과 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최초 출발 위치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듯이, 천부적 자질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가지게 되는 유리한 위치에 대해서도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우리가 우월한 성격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누릴 자격을 갖는다는 주장 역시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격도 대체로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훌륭한 가정이나 사회적 여건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나] “노벨상은 국력상이다.” 이 말은 왜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느냐는 질문에 어느 과학자가 되뇌었던 대답이다. 사실 문학상이나 평화상은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별 상관이 없었으나 과학 부문은 선진국이 독점하다시피 해 왔다. 역대 수상자들을 보더라도 모두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에서 연구 경력을 쌓은 학자들이다. 이들은 시세에 영합하는 연구를 지양하고 해당 과학 분야의 앞날을 깊은 예지로 투시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적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들의 공통점은

장기적인 연구 목표를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단기 실적 위주의 목표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가 가능했다는 사실에는 개인의 형안과 끈기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연구 환경이 충분히 뒷받침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높은 수준의 과학적 성취가 주로 선진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차별적 지원과 충분한 뒷받침이 그러한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특정 국가들에 집중된다고 해서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올림픽의 금메달을 향한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우수성을 가꾸고 키워 줄 국가 사회의 조직력, 즉 비옥한 토양과 훌륭한 경작 능력이 있을 때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의 수준은 종합적인 국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의 극대화가 중요하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아진 오늘날,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닌 분야의 역량 있는 소수 전문가들에게 막대한 투자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국이 가진 자원과 조건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다.

과학기술에 정책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던 19세기 말, 일본은 벌써 서구의 저명한 과학자들을 주요 대학에 초빙하여 강의를 맡기기 시작했다. 이를 주선한 위정자들은 당시 막대한 국고를 손실한다 하여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만일 그들의 안목이 없었다면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과학기술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도의 전략적 경영이 절실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조직력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력이 결합된 정책이 국가의 꿈으로 지속되어 실현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다] 역(力)이 명(命)에게 말했다.

“그대의 공로가 어찌 나만 하겠나?”

명이 말하였다.

“그대가 이 세상의 사물에 대하여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나와 견주려 하는가?”

역이 말하였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과 곤궁하게 살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빈부와 귀천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이 말하였다.

“팽조(彭祖)의 지혜는 요임금이나 순임금보다 낮지 않았는데도 팔백 살이나 살았고, 안연(顏淵)의 재주는 남만 못하지 않았건만 서른두 살밖에 살지 못했으며, 공자의 덕은 제후들보다 못하지 않았는데도 진(陳)나라와 채(蔡)나라의 국경 사이에서 곤경에 처했었고, 은(殷) 주왕(紂王)의 행실은 세 명의 어진 신하들만도 못했는데 임금 자리에 있었으며, 계찰(季札)은 현명했음에도 오(吳)나라에서 벼슬을 받지 않았고, 전항(田恒)은 방자한 인물이었으며 제멋대로 제(齊)나라를 차지하였으며, 백이(伯夷), 숙제(叔齊)는

어진 인물이었음에도 수양산(首陽山)에서 굶어 죽었고, 계씨(季氏)는 청렴했던 전금(展禽)보다도 부유했소. 만약 그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저 사람은 오래 살고 이 사람은 일찍 죽게 하며, 성인은 궁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달케 하며, 현명한 사람은 천하게 지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귀하게 지내게 하며, 선한 사람은 가난하고 악한 사람은 부유하게 하는가?”

역이 말했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라면 나는 본래부터 사물에 대하여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게로군. 그렇다면 사물들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그대가 제어하기 때문인가?”

명이 말하였다.

“이미 그것을 일러 명, 곧 천명이라 했으니 어찌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있겠나? 나는 곧은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굽은 것은 그대로 맡겨 둘 뿐이네. 그러니 제 스스로가 오래 살고 제 스스로가 일찍 죽으며, 제 스스로가 곤궁해지고 제 스스로가 영달하게 되며, 제 스스로가 귀해지고 제 스스로가 천해지는 것이며, 제 스스로가 부유하게 되고 제 스스로가 가난해지는 것이네.”

[라]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는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 영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계층들의 행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어린 시절에 상당 기간 동안 그 언어를 쓰는 지역에 가 있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터득할 수 있는 법이다. 부모의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어린 시절을 영어권 국가에서 보낸 사람들은 손쉽게 유창한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 부모의 경제력 덕택에 영어권 국가로 조기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쉽게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자신의 노력만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만큼의 영어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의 이면에는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사회 상층부의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런 제도의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야 영어의 장벽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영어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특혜는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어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입시 제도는 이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특혜의 한 단면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영어를 통한 그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는 이런 기득권층의 행태를 일반 국민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 해결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면서도 여전히 영어 권력을 틀어쥐고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악순환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한 영어 권력 집단의 기득권과 영어로 인한 사회적 권력의 대물림을 막는 일, 특히 불공정한 경쟁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 □ 문 제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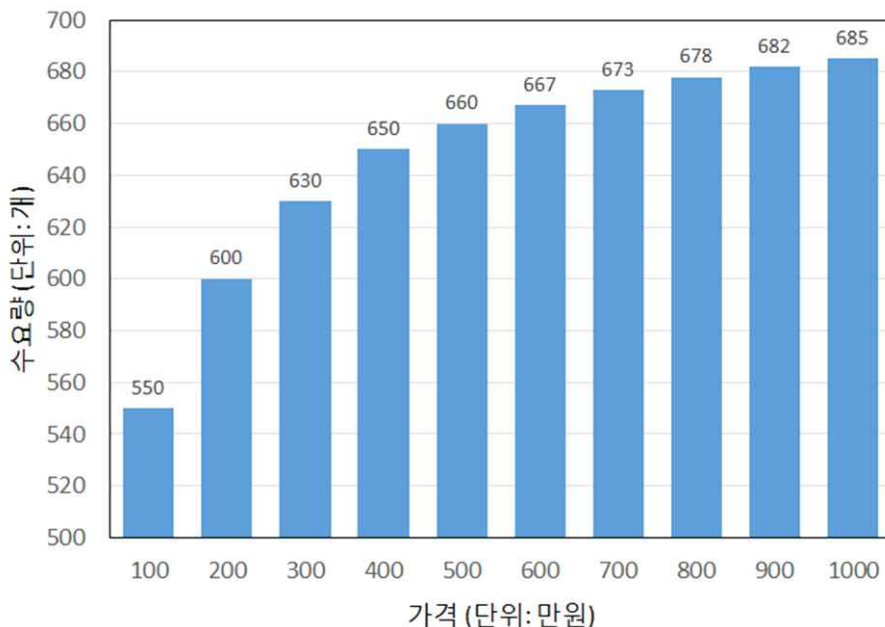
**【문제 2】**

<사례 1> 100년 후의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임의로 추출된 1,000명의 성인 응답자이다. 설문은 사회 A와 사회 B 중 응답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제시된 사회 A와 사회 B의 물가수준, 구입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품목과 품질은 현재와 완전히 동일하고 세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다음 표는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설문의 내용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
	자손의 월 소득	사회 구성원의 평균 월 소득	
사회 A	270만원	300만원	21%
사회 B	220만원	200만원	79%

<사례 2> 다음 그림은 명품 가방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C사가 D국에서 특정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가격 결정을 위해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이다. 가로축은 해당 제품에 책정될 수 있는 가격을, 세로축은 수요량\*을 나타낸다.

\*수요량: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



<사례 1>과 <사례 2>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서술하고 그 근거를 사례별로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 【문제 3】

다음 <보기>의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 &lt; 보 기 &gt; —

최근 몇 년간 대기업 취직에 성공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집안의 경제력과 취업 간의 상관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유한 집안의 자녀일수록 뛰어난 ‘취업 스펙’을 쌓아 누구나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능력이 곧바로 자녀의 능력이 되어 버린 경우는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다.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부모가 베푸는 혜택을 자녀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